

에스파, 글로벌시장 본격 공략

결그룹 에스파가 오는 7월 8일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 (Girls)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매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 에스파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 티저 이미지. 사진=SM엔터테인먼트

어 매우 기쁘고 에스파의 다음 챕터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에스파는 최근 미국 유력 경제 잡지 포브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포브스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예술·마케팅·기술·금융·유통·헬스케어 등 10개 분야 30세 이하의 리더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에스파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인 워너 레코드와 에스파 음악 콘텐츠의 유통 및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파는 오는 7월8일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 (Girls)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프로모션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에서 선보인 '라이프스 투 쇼트' (Life's Too Short) 영어 싱글을 6월24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애플뮤직의 '업 넥스트' (Up Next) 6월의 아티스트로 에스파가 선정됐다. '업 넥스트'는 전 세계 신인 아티스트 가운데 이달의 활약이 기대되는 스타를 애플뮤직이 선정해 발표하는 캠페인이다.

에스파는 소속사를 통해 "워너 레코드의 가족이 되

BTS, 바이든과 '손가락 하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1일 백악관을 방문했다.



▲ 백악관에 초청된 BTS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은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반(反)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탄소년단은 면담 이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POTUS)과 논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BTS는 이번 백악관 방문의 주제인 '아시안 혐오' (아시안 혐오) 문제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입장을 내왔다. 작년 3월에는 서구사회의 아시아계 혐오와 관련해 트위터에 "진심으로 분노한다."며 관련 해시태그(#)를 붙이는 등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TS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이들의 '선한 목소리' 역시 점점 커졌다.

BT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는 "백신 접종은 저희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끊어야 하는 티켓 같은 것"이라며 백신접

소속사 측은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영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향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드, 뎀에 1천 500만 달러 배상"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뎀(59)이 1일 전처 엠버 허드(36)와의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엠버 허드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lamrta.com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허드가 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허드가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2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뎀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할리우드 스타 부부였던 뎀과 허드는 결혼 15개월만인 지난 2016년 5월 이혼했다. 허드는 2018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뎀은 가해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칭하는 게 분명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허드는 뎀의 변호인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자 1억 달러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뎀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배심원단이 내 인생을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반면 허드는 "이 판결은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모욕당하는 시대로 시계를 되돌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숫자퍼즐 정답

3	2	6	7	4	1	8	9	5
1	5	8	6	2	9	4	3	7
4	7	9	3	8	5	1	2	6
5	3	1	8	7	6	2	4	9
6	9	2	5	3	4	7	8	1
7	8	4	9	1	2	5	6	3
8	6	5	4	9	7	3	1	2
9	1	3	2	5	8	6	7	4
2	4	7	1	6	3	9	5	8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국):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